

2020 KLPGA 투어 첫 여왕은 누구?

정규투어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 6~8일 베트남에서 열려 최강 최혜진·임희정·조아연 등 국내외 톱랭커 102명 참가



최혜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6일 베트남에서 2020시즌을 시작하는 첫 대회를 개최한다. 효성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이 6~8일 베트남 호치민 트윈도브스 골프클럽(파72·6579야드)에서 열린다. 2020시즌 KLPGA 정규투어 개막전인 이번 대회는 내년 시즌 판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회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효성 챔피언십은 효성이 지난 2007년 베트남 법인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에서 KLPGA 투어 대회를 열면서 시작했다. 대회가 열리는 트윈도브스 골프클럽은 2011년 12월에 문을 열었으며, 2013년 베트남 최고의 골프 코스로 선정된 곳이다. 2015년에는 베트남 언론 등의 투표로 최고 클럽하우스 상을 받기도 했다. 우승 상금 1억400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총 102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KLPGA 출전자격리스트 상위 85명과 외국 선수 10명, 추천 선수 7명 등이다. 먼저 2019년 시즌에서 대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인기상, 베스트플레이어트로피 등 6관왕을 달성한 '최강자' 최혜진(20)이 출전에 관심이 모인다. 최혜진은 2017년 제1회 효성 챔피언십에서 우승



내년 시즌 판도 가늠할 중요 대회 LPGA 능가하는 샷대결 흥미진진 SBS골프·네이버 등서 생중계

컵을 들어올리기도 했으며, 이번 대회에서 지난해 우승자인 박지영(23)과 다시 한번 우승컵 경쟁을 펼친다.

또 2019 시즌 신인상을 받은 조아연(19)을 비롯한 임희정(19), 박교린(20), 유해란(18), 이승연(21) 등 '루키'들도 참전한다.

임희정은 2019시즌 후반기에만 3승을 잇따라 달성하며 주목받은 신인이다.

특히 최근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에서 LPGA 톱 랭커들로부터 압승을 거둬 두각을 드러냈다. 포볼 경기에서 최혜진과 함께 박인비-대

니엘 강을 4홀 차로 누르고, 포섬 경기에서 박민지와 한 조로 리디아 고-이민지조를 5홀 차로 압승, 1대1 매치플레이에서도 이민지를 2홀 차로 꺾으며 국내파 우승을 이끌었다.

임희정과 뜨거운 신인상 경쟁을 펼쳤던 조아연은 지난해 아마추어 신분으로 월드 아마추어팀 챔피언십 개인전에서 우승해 KLPGA투어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 지난 4월 KLPGA투어 국내 개막전에서는 11년만의 신인 우승자로 등극하기도 했다.

조정민(25)과 함께 이다연(22), 김아람(32)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도 참가해 대회 위상을 높인다.

KLPGA 투어 7년 차인 조정민은 안정된 경기력으로 꾸준한 성적을 내 온 실력자다. 지난 4월 2019 시즌 신설 대회인 셸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총상금 8억원)에서 초대 챔피언이 되기도 했다.

이다연도 2019시즌에 2번 우승하고 6회에 걸쳐 꾸준히 2,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시즌 상금 랭킹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올레TV, LG유플러스 등에서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임희정



조아연



박지영



이다연

메시, 6번째 발롱도르 수상

호날두 제치고 역대 최다... 손흥민 22위 아시아 역대 최고 순위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통산 6번째 발롱도르 수상자로 선정돼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버질 반다이크(리버풀)를 따돌리고 역대 최다 수상자로 우뚝 섰다.

메시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9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선수 부문 트로피를 차지했다. 프랑스 축구전문 잡지인 프랑스풋볼이 주관하는 발롱도르는 한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1956년 처음 시작된 발롱도르는 올해 64회째로 메시는 개인 통산 6차례(2009·2010·2011·2012·2015·2019년) 수상에 성공, 최다 수상 동물(5번)이던 호날두(2008·2013·2014·2016·2017년)를 따돌렸다.

메시가 발롱도르를 되찾은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2016·2017년에는 호날두, 2018년에는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가 상을 받았다.

메시는 2018·2019시즌 소속팀인 바르셀로나에서 51골을 쏘아 올리면서 팀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이끌고 4년 만에 발롱도르를 되찾았다.

특히 메시는 지난 9월 발표된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 2019'에서도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았다.

메시에 이어 반다이크와 호날두가 남자 선수 부문 2·3위를 차지한 가운데 최종 후보 30인에 포함됐던 '손에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은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전남 아시아축구연맹(AFC) 국제선



수상을 받은 데 이어 역대 아시아 선수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 선수로는 설기현과 박지영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최종 후보다.

수비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던 반다이크는 메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연협뉴스

올 황금장갑 주인공 누구?

KBO 9일 골든글러브 시상식...KIA 9명 등 총 102명 후보

2019 KBO 골든글러브 후보가 확정됐다. KBO가 지난 2일 포지션별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 후보를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97명보다 5명이 증가한 102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역대 최다 후보 수를 기록했다.

후보 선정 기준은 지난해와 같다. 투수의 경우 규정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이상,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 이상 수

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오른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3분의 2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서야만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만약 타이틀을 홀더가 여러 포지션에 출전했을 경우 최다 수비이닝을 소화한 포지션의 후보가 된다. 수비이닝과 지명타자 타석을 비교해야 할 경우, 각 해당 기준 대비 비율이 높은 포지션의 후보로 등록된다. KIA에서는 양현종, 윌랜드, 터너(이상 투수), 최

형우(지명타자), 안치홍(2루수), 박찬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이창진-터커(이상 외야수) 등 9명이 후보가 됐다.

KT가 유일하게 모든 부문에서 후보를 배출했으며, SK에서는 13명이 후보에 올라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한편 골든글러브 투표는 오는 6일 오후 5시까지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할 취재기자과 사진기자, 중계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0명의 골든글러브 주인공은 9일 오후 5시 15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열리는 시상식을 통해 가려진다. 시상식은 지상파 TV MBC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생중계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기쁘다 KIA 산타 오셨네

선수단·임직원 7일 '사랑의 쌀' 전달식·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

'호랑이 군단'이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다.

KIA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이 오는 7일 '사랑의 쌀' 전달식과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연다.

KIA는 오전 10시 광주 북구 임동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쌀' 3160kg 전달식을 개최한다. '사랑의 쌀'은 임동 지역 기초수급자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의 쌀'은 KIA 구단이 올 시즌 운영한 물품보관함 수익금에 자체 예산을 추가해 준비했다. 구단 후원업체인 키스코(대표 김원범)도 400만원을 후원했다.

선수단은 오후에는 낙상 사고로 병상에 있는 차

영화 코치를 돕기 위해 일일호프를 연다.

KIA 선수상조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광주 서구 삼우지구 흥타워 1층 '밀탑(구 P&J 웨딩홀)'에서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연다. 미성년자는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으며,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

이번 일일호프에서 선수단은 유니폼을 입고 서빙을 하며 포토 타임과 선수단 애장품 경매 행사, 사진회를 통한 모금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선수들은 또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올 시즌 적립한 성금과 후원 물품을 기부한다.

내야수 박찬호는 오는 6일 밝은안과21병원 김근

오 원장 등과 함께 광주 동구 소재동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원장 강춘심)를 찾아 '사랑의 기금'을 전달한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2019시즌 동안 양현종, 최형우, 유민상, 박찬호, 박준표, 윌랜드가 수상한 밝은안과21병원 월간 MVP 상금 중 일부를 적립해 마련했다.

선수단을 대표해 양현종은 "한 시즌 동안 지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수들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비록 큰 도움이 아닐지라도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영화 코치님의 패유를 바라며 올해도 선수들이 모여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팬들이 찾아오셔서 코치님이 패치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